

‘미세먼지 해법’ 찾아 32개 도시 서울에 모인다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
서울시청서 오늘부터 2일간

동남아 8개국 25개 도시에서
환경전문가 등 300여명 참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베이징, 도쿄, 홍콩 등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모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서울서 열린다.

서울시는 4~5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2018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포럼에는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국 18개 도시와 동남아 7개 도시 등 동아시아 8개국 25개 도시가 참여한다. 각 도시 대표와 환경 분야 전문가

국내에서는 서울시를 포함, 인천시, 수원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이 참여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7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연 후 공동 협력 방안을 찾는 첫 자리다.

포럼 첫날에는 김복호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구 환경보건 총괄책임자가 ‘대기오염: 시민건강의 최대 위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이 ‘메가시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 한다.

이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생활부분별 배출 저감방안에 대한 도시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 간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둘째 날인 5일에는 한·중·일 주요 도시 정부 관계자와 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날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한국 지방정부 탈라노아 대화’도 개최된다.

탈라노아 대화는 지난해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에서 출범해 올해 12월 기후총회(COP24)까지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화 과정이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탈라노아 대화에선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향후 계획이 공유된다. 지자체들이 한국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지구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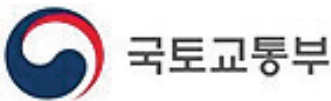
온도를 1.5도 줄이자는 국제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이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베트남 하노이 등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동남아 도시에 미세먼지 관리 노하우를 전달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실천해 나가야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각 도시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무인지하철 개통 전 시운전 60일 의무화



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운영 시행지침 개정안
지진·화재·사고 등 대응 강화 일한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는 화재, 사고 등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합시험운영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통 초기 발생하는 사고와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

시설관리자가 주관한다. 국토부는 종사자 업무 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 운영자가 주관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종합시험운영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철도시설관리자와 운영자는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영 대상 시설을 완공한 후 시설물검증시험을 해야 한다. 관리자는 철도시설물 검증계획,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은 기존 시험 기간의 50% 이상으로 규정해 단계별 최소 시험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무인운전시스템은 지진·화재·사고 등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늘린다.

아울러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

시험 시작 3개월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종합시험운영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영에 대한 검토 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영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된다”며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코레일, 겨울한파 미리대비 ‘선로 대수선’

코레일이 겨울철 한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속철도 전용선로 집중 보수(이하 선로 대수선)에 들어간다고 3일 전했다. 이번 선로 대수선은 경부고속선 광명역~동대구역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보수한다. 사진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자갈교환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연철뉴스

코레일이 겨울철 한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속철도 전용선로 집중 보수(이하 선로 대수선)에 들어간다고 3일 전했다. 이번 선로 대수선은 경부고속선 광명역~동대구역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보수한다. 사진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자갈교환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연철뉴스

뚝섬한강안내센터 에너지자립형 건물 변신

서울시, 센터 11곳 순차적 리모델링
고효율 단열 시공... 내진성능 보강

한강공원 시설물을 관리하는 11개 한강안내센터가 에너지자립형 건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뚝섬한강안내센터를 에너지자립형 건축물로 리모델링했다고 3일 밝혔다. 남은 10개 건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5년 지어진 뚝섬한강안내센터를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고쳐 에너지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시는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보강하고 LED 조명을 교체했다.

건물 단열강화를 위해 3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효율 단열재로 시공했다. 창호는 3중 유리 시스템으로 바뀌 단열성능을 향상시켰다. 틈새를 꼼꼼히 막아 웃풍을 차단해 열 손실도 최소화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 태양광 발전 20kW에 12.8kW를 추가 설치해 전력사용량의 49%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전과 비교해 뚝섬한강안내센터는 단위 에너지소요량이 322.3kWh/m²에서 138.8kWh/m²로 57% 감소했다.

내진성능도 보강했다. 지난해 내진성능 조사 결과 ‘붕괴위험’으로 평가된 지하 1층~지상 2층 기둥에 수직·수평철근을 보강했다. /김현정 기자



지난달 31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과 김홍렬 KT&G 수석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G

KT&G-성동구, 청년 창업지원 MOU

KT&G가 서울 성동구와 손잡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혁신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KT&G는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와 ‘청년창업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KT&G는 성동구 성수역 인근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성동구는 이를 위한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반 시설과 인적·물적 프로그램 교류

를 확대하고 청년 실업난 해소와 사회혁신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KT&G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플랫폼은 소셜벤처 기업들이 다수 밀집한 ‘성수 소셜벤처 밸리’에 2020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구성원 간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앞서 KT&G는 지난해 10월부터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30억원 규모의 사회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내일부터 ‘DMC 페스티벌’ 개막식에 레드벨벳 등 출연

서울시는 5~9일 상암 DMC에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축제인 ‘DMC 페스티벌 2018’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콘텐츠, VR 등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MC 페스티벌은 ▲한류스타가 총출동하는 방송·음악 축제 ▲시제품 전시와 채용 상담이 진행되는 기업지원 행사 ▲미디어 콘퍼런스, 총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행사 기간 동안 DMC 상암문화광장에서는 매일 저녁 방송·음악 축제가 열린다. 첫날에는 개막식에 이어 ‘K-POP 슈퍼퍼포먼스’가 진행된다. 레드벨벳, 여자친구, 워너원, 소환, 다이나믹 듀오 등이 출연해 축하 공연을 펼친다.

6일에는 ‘라디오 DJ 콘서트’가 준비됐다. 7일에는 복면가왕 출연자들이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는 ‘복면가왕 더 무너’, 8일에는 최정삼급 한류 가수들이 공연하는 ‘코리아 뮤직 웨이브’, 9일에는 아시아 가수들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인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가 마련됐다. /김현정 기자

12개 자치구서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

서울시, 활동가 34명 놀이터에 배치

서울시는 9~11월 시내 12개 자치구에서 ‘움직이는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움직이는 놀이터는 놀이·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놀이활동가’가 각 놀이터에 배치돼 기차놀이, 줄넘기, 물총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신개념 놀이터다. 지난 5월 처음 시작돼 7월 폭염 전까지 15개 놀이터에서 227회 진행됐다.

하반기에는 활동가 34명이 놀이터마다 2~3명씩 배치돼 주 2회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희망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후 4~6시 놀이터로 나오면 된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일정



‘협동 공 굴리기’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 모습. /서울시

이 취소될 수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놀이터는 이웃이 함께 만나 어우러지는 곳”이라며 “이번 달, 자녀의 손을 잡고 움직이는 놀이터로 나와 이웃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